

자료제공 : 2024. 1. 2.(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이성은	02-2133-5005
양성평등정책팀장	송미정	02-2133-5007
관련 누리집	https://umppa.seoul.go.kr (몽땅정보만능키)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6쪽

'탄생응원'에 진심인 오세훈 시장, 새해 '서울의 희망' 만나러 갔다

- 2일 오후 오 시장, 강북삼성병원의 갑진년 새해 첫둥이 출산한 산모·배우자 격려 및 축하
- “새해 첫날 태어난 신생아는 우리의 밝은 미래이자 희망...‘탄생응원’ 제도 종합적으로 제공”
- 2024년 신생아·부모, 양육비·돌봄·이동편의 등 지원혜택... 서 확인
- 시, 올해부터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본격 추진...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서울 조성

“새해 첫날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난 신생아들이 우리에게 밝은 미래이자 희망이다. 소중한 출생이 어떤 기쁨보다 우선하도록 다양한 ‘탄생응원’ 제도와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부모와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월 2일(화) 오후 2시, 강북삼성병원의 갑진년(甲辰年) 새해 첫둥이로 기록된 아기를 출산한 산모와 배우자를 만나 가정 내 첫 아이 탄생을 축하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 강북삼성병원의 새해 첫둥이는 지난 1일(월) 오전 00시 04분 태어났다. 신월동에 거주하고 있는 엄마 고혜인씨(94년생)와 남편 채영호씨(85년생) 부부 사이에 태어난 여아(3.22kg) 스벅이(태명)로 우렁찬 소리로 새해를 열었다. 산모/배우자는 “행복, 감사, 행운. 이 모든 단어로도 설명이 부족할 정도로 좋으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라고 말했다.

<청룡의 해, 서울에서 태어난 신생아와 부모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한편, 청룡의 해에 서울에서 태어난 신생아와 부모들이라면 소득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출산·돌봄·양육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우선, 돌봄공백을 더욱 촘촘히 메우기 위해 올해부터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으로 기존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시작한다.
- 또, 출생 순위나 다태아 여부 등과 상관없이 아동당 200만 원씩이던 ‘첫만남이용권’이 올해부터는 둘째아 이상의 경우 300만 원으로 인상돼 다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부모 급여도 늘어난다. 지난해까지 0살과 1살을 둔 가구에 각각 월 70만원과 35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0살 가구에 월 100만원, 1살 가구에 월 7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의 외출을 돕는 ‘서울엄마아빠택시’(이용권 10만원 상당)도 16개 자치구에서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이외에도 지난 1년여 간 서울시 종합 보육정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거나 정책을 경험한 시민이 총 227만 명에 달했던 만큼, 새해에도 저출산 위기 극복과 양육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기존 사업〉

○ (아동수당)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0~7세 자녀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 중이다.

○ (돌봄 지원) 세심한 보육이 필요한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서울형 0세 전담반’ 100개반을 운영하고, 365어린이집·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주말보육 어린이집 등 다양한 시간대의 긴급, 틈새보육도 지원하고 있다.

○ (산후조리경비) 임신과 출산이라는 뜻깊은 여정을 겪은 산모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10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 경비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 (서울엄마아빠VIP존) 아이와의 외출이 불편한 일이 아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한강공원, 문화시설 등 서울 곳곳에 휴식·놀이·돌봄 전용(VIP) 공간 13개소를 조성·운영 중이다.

□ 기타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분 야	사업명	주 요 내 용
양육비 지원	첫만남이용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지급 ※ 둘째 이상 300만원
	부모급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세) 매달 100만원 지급 · (1세) 매달 50만원 지급
	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세 이하의 아동당 매월 10만원 지급
돌봄 지원	서울형 0세 전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에 12개월 미만의 영아 보육 전담반 운영
	영유아 긴급보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5·거점형 야간·시간제·주말·휴일 보육 어린이집 등 긴급·틈새보육 지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 이상 출산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이동편의·공간지원	서울엄마아빠 택시 이용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개월 이하 양육기정 택시이용권 10만원 지원
	서울엄마아빠 VIP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유·돌봄·놀이 등 육아편의를 제공하는 양육자를 위한 전용공간 조성·운영(13개소)
	가족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 동반 가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와 물품 등을 갖춘 화장실 조성·운영(24개소)
건강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이용권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60일 이내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산후 우울증 정신건강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우울 검사 및 심층상담

※ 자세한 사업내용 및 이용방법은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 참고



1월 2일(화) 오후 강북삼성병원 산부인과 병실을 찾은 오세훈 시장이, 강북삼성병원의 올해 태어난 첫둥이를 안고 산모 및 배우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2일(화) 오후 강북삼성병원 산부인과 병실을 방문해, 지난 1일(월) 아기를 출산한 산모에게 출산 축하 인사를 전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1월 2일(화) 오후 강북삼성병원 산부인과를 방문한 가운데 올해 강북삼성병원서 태어난 신생아들에게 손인사를 전하고 있다.